환경성 쿠시로 자연환경사무소
우편번호 085-8639 홋카이도 쿠시로시 사이와이쵸 10-3 쿠시로 지방합동청사 4층
TEL 0154-32-7500　　FAX 0154-32-7575

시레토코 국립공원

Shiretoko National Park

일본의 국립공원2

시레토코 국립공원

시레토코 스미레 (제비꽃과)

그림:니하시 아이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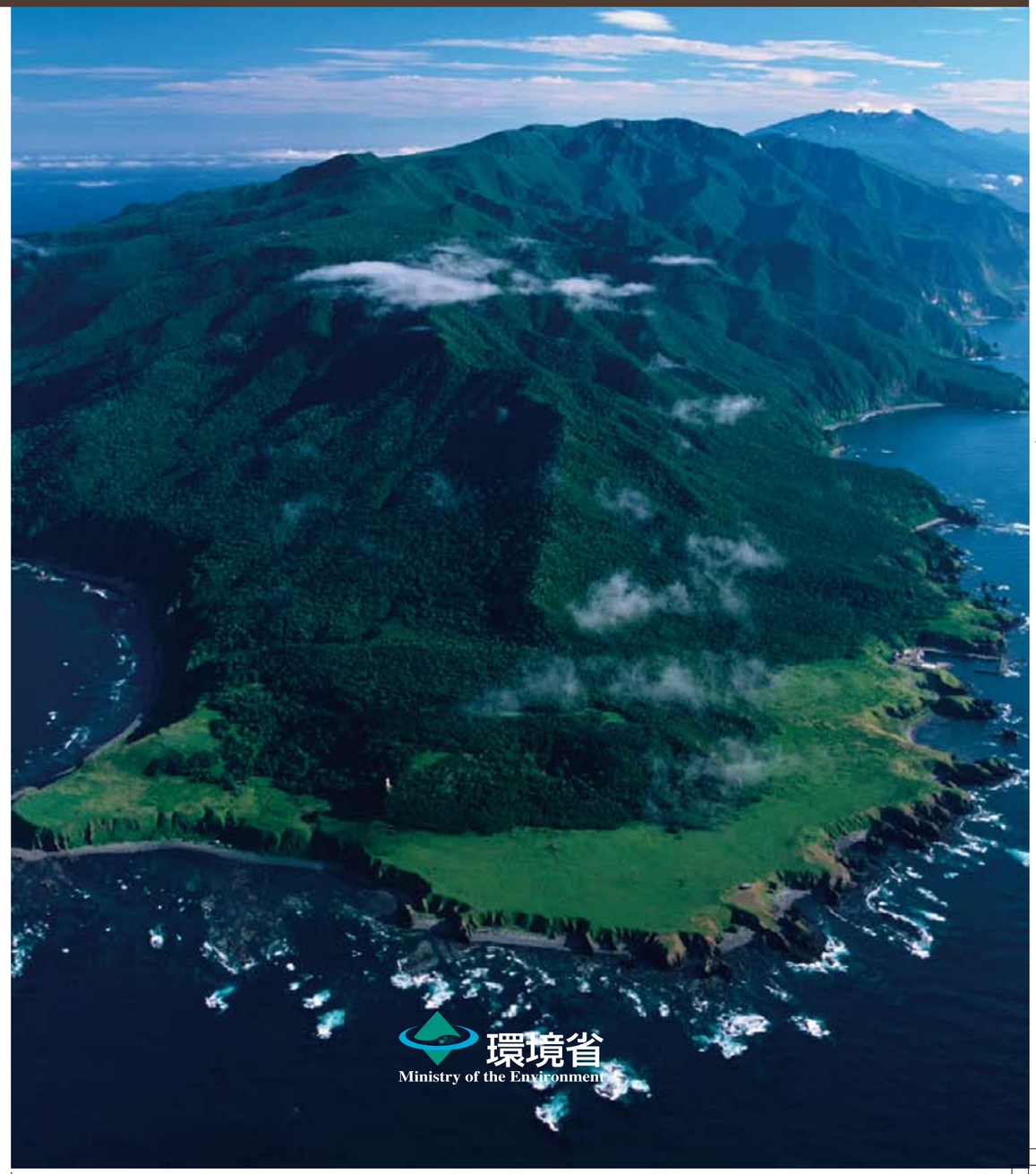
Viola kitamiana

시레토코산 계열의 자갈밭에서 자란다. 꽃의 직경 약 2cm, 풀 길이 10cm가 채 안 된다. 꽃은 희고 중앙부분이 뚜렷한 노란색, 잎은 광택이 있는 짙은 녹색으로 유황에 의해 희게 표백된 자갈과 잘 대치된다. 점재하는 큰 돌에 기대듯이 해서 핀다.

우토로 자연보호관 사무소
우편번호 099-4355 홋카이도 샤리군 샤리쵸 우토로 히가시 186
TEL 0152-24-2297　FAX 0152-24-3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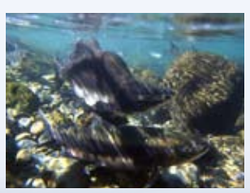
라우스 자연보호관 사무소
우편번호 086-1822 홋카이도 메나시군 라우스쵸 유노사와쵸
TEL 0153-87-2402　FAX 0153-87-2468

라우스 비지터 센터
우편번호 086-1822 홋카이도 메나시군 라우스쵸 유노사와쵸
TEL 0153-87-2828



環境省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hiretoko National Park
시레토코 국립공원



시레토코(시레토코)의 어원은【시리에 토크 sir-etok】에서 유래하여, 땅을 가리키는(sir)·돌출부를 가리키는(etok) =대지의 끝(막다른 곳), 곳을 의미한다.

CONTENTS

시레토코 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002
사진으로 쓰는 시레토코 국립공원 ···· 004
지도로 보는 시레토코 국립공원 ····· 012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프로필 ····· 014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이용에 대해서 ···· 018
시레토코 국립공원에 갈려면 ····· 022
관계시설□기관 연락처 일람 ····· 023
국립공원의 프로필 ····· 024
홋카이도의 자연환경보전 ····· 025

National Parks in Eastern Hokkaido
홋카이도 동부의 국립공원

시레토코 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수의 야생생물의 생활을 지탱하는 풍요로운 숲과 바다

아이누(홋카이도의 원주민종족)가 「시리에-토크(대지가 끝나는 곳)」이라 부른 시레토코 반도.
지금도 원생의 자연이 짙게 남겨진 이 땅에는
아이누인들이 「카무이(신)」이라고 일컬은 불곰과 시마후쿠로(부엉이의 일종)가 생식하고 있다.
유빙의 도래는 풍요의 바다를 길러내어, 강으로, 그리고 숲으로 이어져간다.
그 농밀하고 귀중한 자연은 2005년 여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용솟음치는 야생의 숨결

웅대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생물들

해안을 활보하는 불곰

일본최대의 육상동물이다. 초목이나 나무열매, 버섯등외에 가을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송어를 먹고 동면을 준비한다.

☞ 불곰 : 아이누어로【키문·카무이】(산의 신)이라고 부른다.

유빙과 큰 독수리, 흰꼬리수리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대형맹금류로서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다. 큰 독수리·흰꼬리수리의 다수는 겨울철에 러시아 극동부에서 겨울을 넘기기 위해 날아오지만, 흰꼬리수리의 일부는 국내에서 번식하고 있어서 시레토코에서는 1년중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 아이누어로 큰 독수리는【카팟치리】,【카팟치리·카무이】, 흰꼬리수리는【온네우】라고 부른다.

큰 독수리(왼쪽), 흰꼬리수리(오른쪽)

물속을 누비는 큰바다사자 무리

물개류 최대종인 큰바다사자. 12월~1월, 라우스쯕 연안에서는 뗏목형태를 이루는 무리를 볼 수도 있다. 환경성 레드리스트의 멸종위기2류(VU)인 한편, 어망피해와 포획물의 손상 등의 어업피해도 있어 공존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큰바다사자 : 아이누어로【에타시페】(코를 고는 것)라고 부른다.

한가로이 헤엄치는 범고래

계절에 상관없이, 자주 시레토코 반도에 모습을 나타내는 범고래. 10m가까운 키와 10톤이나 되는 몸무게지만, 시속 80km로 헤엄칠 수 있다.

☞ 범고래 : 아이누어로【렙·운·카무이】(앞바다에 있는 신)이라 부른다.

계류의 산천어

1년 중 시레토코의 강에 생식하는 곤들매기의 일종. 시레토코의 강의 주역이며 섬세한 홍백의 반점과 오렌지색 배의 대비가 아름답다. 시마후쿠로(부엉이의 일종)등의 대형맹금류의 귀중한 먹이자원이기도 하다.

☞ 산천어 : 아이누어로【오솔·코·오마】라고 부른다.

태고로부터 이어지는 야생생물들의 삶

그곳에는 몇백년, 몇천년이나 반복되어온 생명의 순환이 있다.

Shiretoko National Park introduced with photos

예리한 안광을 내뿜는 시마후쿠로 (부엉이의 일종)

날개를 펼치면 1.8m나 되는 세계최대급의 부엉이. 아이누인들은 「코탄-콜-카무이」(마을을 지배하는 신)으로 소중하게 취급해왔다. 일본국내에서는 120마리 정도밖에 생식하고 있지 않는 희소종.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곱사연어

북양에서의 회유를 마친 곱사연어는 가을에 산란을 위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 일부는 불곰이나 맹금류의 먹이가 되고, 또 시체는 풍부한 영양소가 되어서 시레토코의 강과 숲에 자양을 가져다 준다.

☞ 곱사연어 : 아이누어로【에모이】,【헤모이】,【토비우】(등의 혹)이라 불린다.

어린 일본사슴의 수컷

일본사슴은 일본에 생식하는 사슴 중에서는 최대. 뿔 부딪히기는 수컷이 가을의 번식기에 보이는 행동. 근래 시레토코의 일본사슴은 급증하고 있어, 식해로 인한 식생의 파괴가 문제가 되고 있다.

☞ 일본사슴 : 아이누어로【육】이라 부른다.

꼬리를 들어서 잠수하는 향유고래

12~18m나 되는 향유고래는 여름에 라우스앞바다에서 그 호쾌한 물뿜기와 꼬리지느러미를 볼 수 있다. 오징어 등을 잡아먹으며, 3000m의 심해까지 잠수한다고 알려져 있다.

☞ 고래 : 아이누어로【훈베】(훈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라 부른다.

유빙 위의 점박이물범

유빙 위에서 배를 깔고 눕거나 얼음바다에 얼굴을 내미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점박이물범. 유빙과 함께 월동·출산을 위해 시레토코를 찾아 든다. 3월 하순에는 유빙 위에서 새하얀 새끼물범을 출산한다.

☞ 점박이물범 : 아이누어로
【톳카리】(바다표범전반),
【포키리】,【케쇼포키리】(반점이 있는 것)이라 부른다.

Rich and varied natural landscapes

변화무쌍한 자연경관

사람을 곁에 얼씬 못하게 하는 엄격함은 동시에 사람의 상상을 넘은 경관을 만들어낸다.

저녁노을에 물든 이와오베츠의 절벽

시레토코 반도의 해안선은 험한 지형이 연속된다. 그 중에서도 사리쪽의 이와오베츠 주변은 높이 100~200m의 절벽이 연속되어, 파도나 유빙에 침식된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후레페노타키 전망대)

바다에 떨어지는 카슈니노타키(폭포)

해안에서 능선까지 단숨에 달려 올라가는 시레토코 반도. 강에는 「중·하류역이 없다」고 일컬어져, 때때로 폭포가 그대로 하구가 되어있다.

(📷: 우토로~시레토코곶 항로의 관광선에서)

늦가을의 시레토코 오호와 첫눈이 내린 라우스다케

원생림 속에 점재하는 환상적인 다섯 개의 호수와 늪. 주위의 깊은 숲과 시레토코렌잔을 투영하는 모습은 시레토코를 대표하는 경관의 하나로 말할 수 있다.

(📷: 시레토코 오호·일호)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시레토코렌잔

시레토코렌잔은 약 25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낙원을 연상시키는 꽃밭과 습원,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는 활화산의 여러 표정을 보여준다.

(📷: 이오잔 부근의 능선에서)

Rich ocean helps maintain terrestrial ecosystems

육지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풍요로운 바다

유빙이 가져다 주는 바다의 은혜가 야생생물을 길러내고,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

백연어의 어획량

시레토코는 홋카이도 내에서도 굴지의 어획량을 자랑한다. 주력은 연어·송어류, 거기에다 라우스에서는 겨울철의 명태가 더해진다. 성황기에는 몇십척이나 되는 어선이 모여들어 항구는 활기에 싸인다.

라우스 마에하마의 다시마 숲

시레토코·라우스산 다시마는「라우스 다시마」라고 하는 최고급품으로서 관서지방의 요정 등에 출하된다. 또한 바다 밑을 뒤덮은 다시마 숲은 고기들의 요람으로써 치어를 키운다.

다시마 숲과 곱사연어떼

흔들흔들거리며 흔들리는 거대한 라우스 다시마 위를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온 곱사연어가 헤엄친다. 가을에는 백연어도 가세하여 시레토코의 강은 어디나 강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송어로 넘쳐난다.

넓은 바다를 가득 메우는 유빙

시레토코는 북반구에서 유빙을 볼 수 있는 남단에 있어, 유빙이 가져다 주는 식물 플랑크톤의 대증식이 시레토코 생태계의 토대가 된다.

유빙의 바다의 천사, 클리오네

유빙과 함께 북쪽바다에서 시레토코로 찾아오는 클리오네는 시레토코의 바다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조개껍질을 지니지 않는 권패(나선형으로 둘둘 말린 조개)의 일종

지도로 보는

시레토코 국립공원

작가 시바 료타로가 「검의 날이 바다로 튀어나온듯한 형태」라고 형용한 시레토코 반도는 길이 약 70km의 길쭉하고 예리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검의 중심선을 따라 끝에서 밑둥부분에 걸쳐서 1,200~1,600m의 가파르고 험준한 산들이 연결되어 있다. 반도의 선단부의 20km정도는 도로도 없고 인공물은 곶에 있는 등대와 해안선을 따라 점재하는 어업종사자들의 오두막뿐이다.

산들을 끼고, 북서쪽이 샤리쵸, 남동쪽이 라우스쵸이다. 샤리쵸의 우토로와 라우스쵸의 라우스는 숙박시설과 정보제공시설이 집중한 국립공원의 이용거점이 되어있다.

이 2개의 이용거점을 잇는 것이 시레토코 횡단도로이다. 횡단도로의 최고지점인 시레토코 고개에서는 날씨가 맑으면 산들이나 바다의 조망이 멋있다. 또한 횡단도로는 적설과 엄중한 기상 탓에 겨울철(11월 상순에서 4월하순)은 통행금지가 되어 라우스와 우토로를 왕래하려면 반도의 밑둥부분에 위치하는 콘포쿠고개를 경유해서 2시간이상의 여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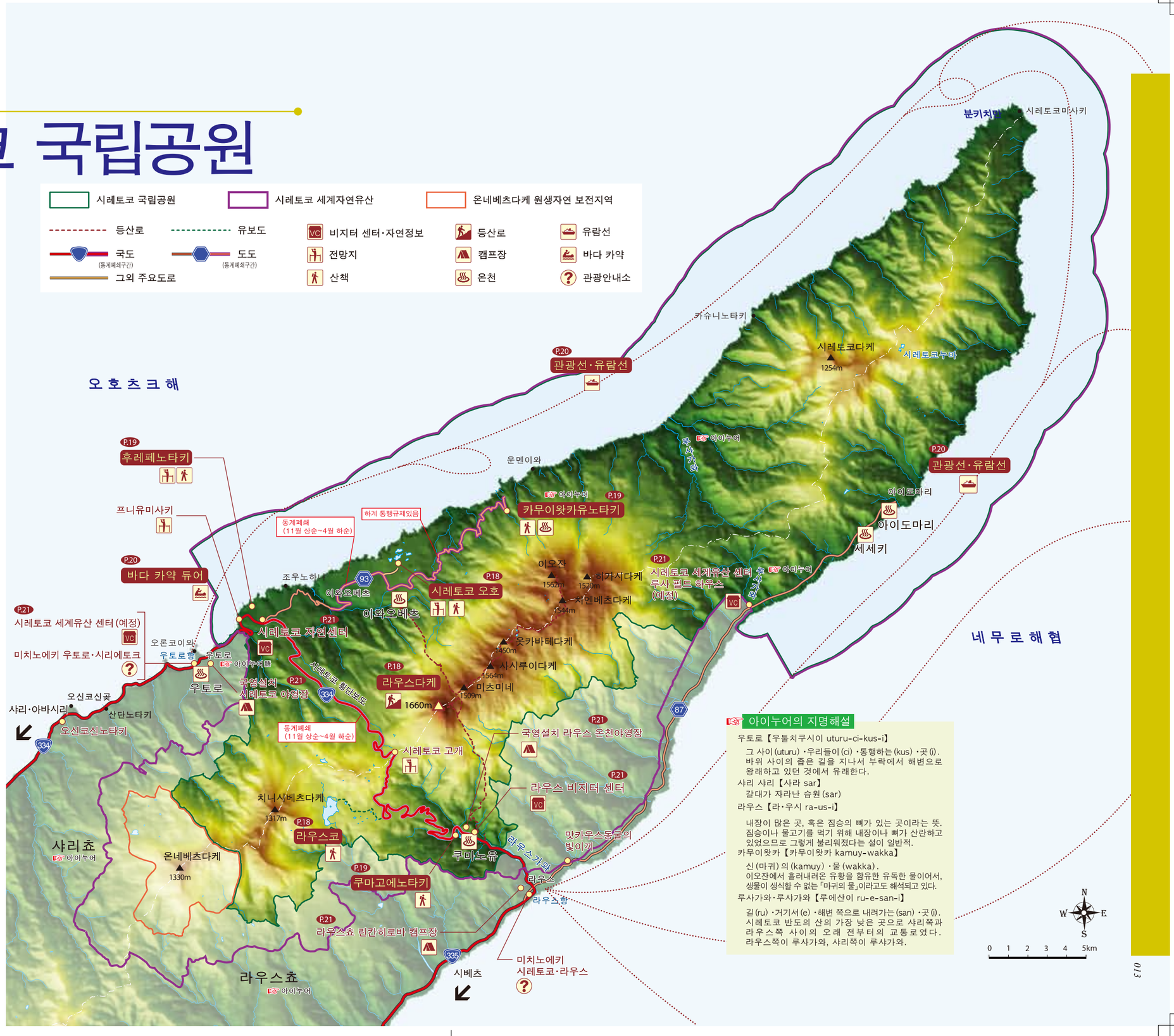
우토로쪽의 볼 것으로는 오호츠크해의 전망을 볼 수 있는 프유니고개, 절벽을 조용히 흘러내리는 폭포가 아름다운 후레페노타키, 호수 면에 비치는 산들의 조망을 즐기는 시레토코 오호, 그리고 온천수가 흘러내리는 카무이왓카유노타키등이 있다.

라우스쵸쪽의 볼 것으로는 치니시베츠다케의 동쪽편에 있는 시레토코 최대의 호수인 라우스 호와 라우스강에 걸쳐진 쿠마고에노타키등이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본백대명산의 하나이기도 한 라우스다케는 우토로쪽, 라우스쪽 어디서부터라도 당일치기로 오를 수가 있어 시레토코다움을 실컷 만끽할 수 있다.

관광선은 우토로쪽, 라우스쪽 양쪽에서 운항하고 있다. 우토로쪽에서는 시레토코곶까지 이어지는 깎아지른 절벽이 이루어내는 험난
하고 웅대한 경관과 함께 다수의 바닷새를, 라우스쪽에서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돌고래와 고래등의 대형해양서식 포유류, 또한 겨울철에는 유빙과 큰 독수리·흰꼬리수리, 바다표범류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토로쪽, 라우스쪽 양쪽에서 야성미 넘치는 개성적인 온천이 많이 있어, 여행의 피곤함을 풀기에 최적이다.



Description of the Shiretoko National Park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프로필

일본국내에서도 굴지의 풍요로운 생태계를 가지는 시레토코 국립공원. 2005년 7월, 그 자연의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록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된 시레토코의 자연은 도대체 무엇이 대단한 것인가. 또 어떤 경위로 그 풍요로운 자연이 현재까지 지켜져 온 것인가를 해설한다.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특징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특징은 4개가 있다. 먼저 불곰이나 범고래 등의 대형포유류, 멸종의 염려가 있는 시마후쿠로(부엉이의 일종)를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유빙이 도래하는 바다와 원생적인 삼림이 남아있는 육지가 서로 관련하여 하나가 되어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또한 화산활동과 침식활동에 의해 형성된 험난하고 웅대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해나가며 자연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시레토코 오호의 이호에서 바라보는 시레토코렌잔. 바다에서 고산대까지 연속하는 생태계에 시레토코의 가치가 있다.

ⅰ) 야생동물의 높은 밀도

시레토코를 특징짓는 동물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최대의 육상동물인 불곰이다. 시레토코 반도의 생식 수는 약 200마리로 추측되어 세계에서도 굴지의 밀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불곰의 발자취, 대변, 식물을 먹은 흔적이나 나무에 긁혀진 발톱자국 등은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다. 또 일본사슴이나 북방여우 등은 도로변 등으로 빈번하게 나타나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2m나 되는 날개를 펼친 흰꼬리수리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특히 겨울은 러시아에서 많은 큰 독수리·흰꼬리수리가 찾아오기 때문에 하루에 100마리 이상을 볼 수도 있다. 바다에서는 범고래를 비롯한 고래류가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고 겨울에는 바다표범이나 큰바다사자도 찾아온다.

◀ 시레토코의 먹이사슬

▼반도 끝에 가까운 작은 강의 하구에서 2마리의 어린 불곰이 표착한 밍크고래의 시체를 먹고 있다. 이와 같이 바다와 육지에서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ⅱ) 바다와 육지의 상호관계

이와 같이 많은 야생생물이 좁은 범위 안에서 생식해나갈 수 있는 것은 유빙이 가져다 주는 은혜를 연어과 물고기류가 육지에 옮기는 시레토코만의 바다와 육지와의 관계에 의한 점이 크다. 예년 1월 하순에 시레토코에 도래하는 유빙은 아이스·알루지라고 불리는 식물플랑크톤을 동반하여 찾아온다. 봄이 되어 유빙이 녹으면 아이스·알루지는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그것을 먹는 동물플랑크톤이 늘어난다. 연어과 물고기류의 치어가 이들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며 시레토코를 떠나서, 바다를 수년간 회유한 후에 시레토코로 돌아온다. 그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는 불곰이나 시마후쿠로(부엉이의 일종)의 식량이 되어 대변으로 그 영양분은 숲으로 옮겨져 간다. 또한 바다의 고기를 큰 독수리·흰꼬리수리가 먹거나 해안에 옮겨진 고래를 불곰이 먹는 것에 의해서도 바다의 영양분은 육상으로 옮겨져 간다. 이 같은 유빙의 도래를 기점으로 하는 높은 영양분의 순환이 시레토코에 생식하는 많은 야생생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 오호츠크해에서는 겨울이 되면 해수가 얼어서 해빙이 생긴다. 시레토코는 이 해수가 흘러 드는 남단에 속한다.

ⅲ) 웅대한 경관

라우스다케와 이오잔등의 산들이나 시레토코 오호와 라우스호등의 호수와 늪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시레토코에 점재하는 온천도 화산활동의 은혜이다. 또한 해안부에서 볼 수 있는 120m에 달하는 해안절벽이나 독특한 형태를 한 기암군은 화산의 용암이나 퇴적물이 파도나 유빙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토로에서 더 앞쪽의 반도서해안에는 멋진 절벽이 이어진다. 용암지형이 파도와 유빙 등으로 침식되어 생긴 지형이다.

ⅳ) 보호의 역사

이처럼 웅대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고밀도로 야생생물이 생식하는 시레토코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64년이다.

▲세계자연유산지역의 약 86%가 시레토코 국립공원이다. 그 외 원생자연환경 보전지역, 나라지정 조수보호구, 삼림생태계 보호지역 등에 의해 유산지역의 자연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1934(쇼와9)년에 일본최초의 국립공원이 지정되고부터 30년 후에 해당한다.

당시의 국립공원은 관광진흥의 기대를 하는 지역의 요망에서 지정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시레토코는 1953(쇼와28)년에 시레토코의 조사를 실시한 식물학자 타테와키 미사오등에 의한 강한 주장에 의해「원시적인 경관의 보호를 위해」지정되었다. 규제가 엄한 특별보호지구의 면적이 지정 당시 50%(현재는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보호에 중점을 두어온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공원 지정 후는 1960(쇼와35)년대 전반에 착공된 우토로와 라우스를 잇는 시레토코 횡단도로와 이와오베츠에서 카무이왓까를 지나서 루샤에 도달하는 시레토코 임도의 공사가 진행된 이외에 1980(쇼와 55)년대에 국유림의 일부가 벌채되는 등의 개발이 이루어진 한편으로 특별보호지구의 확대(1984,1995년), 원생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1980년), 나라지정 조수보호구의 지정(1982년), 삼림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정(1990년)등 보호의 강화가 꾀해져 왔다.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의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도 시레토코의 특징이다. 지역의 자치단체인 샤리쵸와 라우스쵸는 1974(쇼와 49)년에 시레토코의 보호를 선언하는「시레토코 헌장」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1977(쇼와 52)년에는

일본사슴의 시체를 제거한다.

시레토코 오호 유보도에서 발견한 일본사슴의 시체를 옮기는 시레토코 재단의 직원. 관광객이 걷는 유보도 주변에 불곰을 유인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시레토코의 자연과 관광은 관계자의 착실한 노력에 의해 공존하고 있다.

▲시레토코 오호 앞의 도로변에는 지금도 이농한 개척민의 폐옥이 몇몇 남겨져 있다.

샤리쵸에서 일본에 있어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의 선구인「시레토코 100평방미터 운동」이 개시되고 거기에다 1988 (쇼와63) 년에는 시레토코의 조사·연구, 자연보호사상의 보급계발을 행하기 위해 시레토코재단이 설립되었다. 2006 (헤이세이 18)년 라우스쵸도 출자단체가 되어 시레토코 반도의 두 마을에 걸친 환경보전활동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등록

시레토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을 때 높이 평가된 것은 다음의 4개 사항이다.

(1) 북반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유빙지역으로 유빙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은 특이한 생태계의 생산성이 보여져,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상호관계의 현저한 견본인 점.

(2) 시마후쿠로 (부엉이의 일종), 시레토코 스미레등의 많은 희소종을 포함한 해양성 및 육상성의 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점.

(3) 많은 연어과 물고기류와 큰바다사자나 많은 고래류를 포함한 해양서식 포유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점.

(4) 세계적으로 희귀한 해조류의 생식지로서 중요함과 동시에 철새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점.

물론 이 가치들을 지닐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능한 제도나 지역의 대처가 없으면 세계유산으로는 등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록됨에 의해 일본정부와 지역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장래에 걸쳐서 지켜나갈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큰 나무의 나무구멍에서 둥지를 틀어서 계류의 물고기를 먹는 시마후쿠로 (부엉이의 일종)가 다수 생식하고 있다는 것은 시레토코에 건강한 숲과 강이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지역시점에서 자연을 지킨다

세계유산으로의 추천을 계약으로 해서 시레토코에서는 2개의 회의가 설치되었다.「시레토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 연락회의」(현「시레토코 세계자연유산지역 연락회의」)와「시레토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 과학위원회」(현「시레토코 세계자연유산지역 과학위원회」)이다.「지역연락회의」에서는 관계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와 어업협동조합 등의 광범위한 관계자가 모여 세계유산의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과학위원회」에서는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의 전문가가 모여서 과학적인 견지에서 세계유산의 관리에 조언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대처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해역의 관리」,「하천공작물의 개량」,「일본사슴의 관리」에 대해서는 과학위원회 밑에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같이 지역의 주민이나 어업종사자를 끼워서 논의하는 장소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의견에 기초하여 관리방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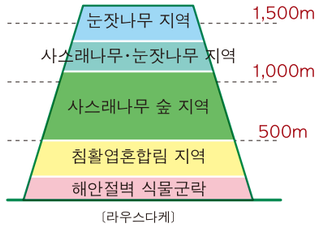
시레토코 데이터센터

시레토코 세계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모은 홈페이지가 시레토코 데이터센터이다. 시레토코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나 관계 회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http://shiretoko.env.gr.jp/

자연보호와 관광의 양립

시레토코의 훌륭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하는 것은 국립공원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한편으로 무제한의 관광이용은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시레토코에서는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바람직한 보호와 이용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학식경험자, 행정기관이나 행정관계자, 산악회 등의 지역단체 등을 구성멤버로 한「이용적정화 검토회의」가 설치되어 자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국립공원이 이용되기 위한 기본계획과 기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용의 마음가짐」을 묶었다.

또한 2004 (헤이세이 16)년에는 샤리쵸와 라우스쵸의 관광협회가 중심이 되어「시레토코 에코 튜어리즘 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시레토코의 자연의 영위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레토코만의 에코 튜어리즘을 추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레토코 오호나 후레페노타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드 튜어의 규범 만들기, 어업과 제휴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불곰에 의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관광형태의 검토 등을 행하고 있다.



〔라우스다케〕

시레토코의 다양한 환경과 식생

시레토코에서는 표고 0미터의 해안선에서 1600미터의 고산대까지 여러 형태의 환경이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다. 해안에는 자연초원, 산중턱에는 침활엽혼합림이나 사스래나무 지역 등의 원생림, 그리고 산의 능선에는 눈잣나무 지역과 꽃밭의

▲겨울의 라우스항을 드나드는 어선의 모습. 시레토코 근해는 수산자원의 풍부함으로도 유명하다.

시레토코 국립공원을 즐기기 위한 요령

시레토코 국립공원은 원생적인 자연이 엄정하게 보호되고 있는 장소이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의외로 적다. 훌륭한 보물을 작은 창에서 들여다보는 듯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레토코의 자연을 즐기기 위한 2개의 요령을 알려주고 싶다.

첫 번째는「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것」즉 이런저런 체험을 하는 것이다. 유보도를 걷는 것, 관광선에 타는 것, 가이드 튜어에 참가하는 것, 박물관에 가는 것 등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정해진 일변도의 관광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레토코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상상력을 동원할 것」이다. 불곰을 실제로 보는 일은 없더라도 발자취나 발톱자국 등 흔적을 보는 것에 의해 불곰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맛있는 해산물을 먹을 때에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는 불곰을 상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넓은 하늘을 나는 큰독수리·흰꼬리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고향인 러시아 극동부의 냉혹한 자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태고에 시레토코의 자연을 만든 화산활동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것도 즐거울 것이다.

느긋하게 머물면서 시레토코의 자연의 깊이를 느꼈으면 한다.

column

태고, 사람은 시레토코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원생의 자연이 남아있는 시레토코이지만, 약 8000년 전의 죠몬시대 초기의 유적이 호로베츠가와 하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속 죠몬문화기 (기원 0~7세기경)를 거쳐, 6~11세기경에 북방의 사할린에서 건너온 해양수렵민족 (오호츠크인)이 시레토코 반도나 오호츠크 해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반도 연안의 유적에서는 고래뼈를 사용한 도구와 바다표범과 불곰을 형상화한 흙 인형이 출토되고 있다. 고대인도 시레토코의 풍요로운 바다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오호츠크인의 동물조각 등에서 보여지는 자연관은 이후의 아이누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바다표범의 흙 인형

곰의 흙 인형

〔사진제공:시레토코 박물관〕

▲시레토코 오호에서는 가이드의 자연해설을 들으면서 걷는 튜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How to enjoy the Shiretoko National Park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이용에 대해서

지금도 원생의 자연을 색 짙게 남기고 있는 시레토코 국립공원은 많은 매력으로 넘치는 관광지임과 동시에 그 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몇 가지 등산·산책코스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자.

〔등산•산책〕 Climbing & Hiking

시레토코 반도는 등산로나 유보도가 있는 장소가 극히 드물다. 또한 초보자용코스와 상급자용코스의 차이가 확연한 것도 특징이므로 자신의 체력·기량에 맞는 무리 없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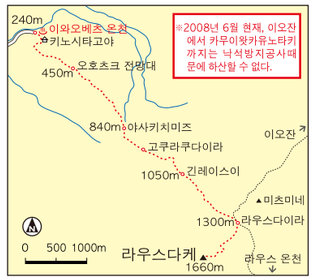
라우스다케 등산(1660m)

【DATA】우토로시가지에서 이와오베츠온천까지는 약 13km. 산정상까지 오를 때 약 4시간, 내려올 때 약 2시간 반.

우토로, 라우스 양쪽에서의 등산로가 있지만 비교적 초보자용인 것은 우토로쪽의 코스이다. 시작부터 잠시 동안은 수림대를 오르고 얼마 안 있어 삼림한계를 넘으면 늪을 따라 난 밝은 길이 된다. 7월중순정도까지 눈 계곡이 남아있어서 미끄러짐에 주의하고 또한 라우스다이라부터는 바위 밭이므로 낙석에 주의하자. 등산로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휴대용 화장실을 지참하자. 또 라우스쪽에서는 윗쪽에 눈 계곡이 늦게까지 남아있어 길을 잃기 쉬우므로 상급자용의 코스이다.

등산입구에 있는 키노시타고야(오두막집). 불곰의 출몰이나 등산로의 상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숙박도 가능.

정상은 돌발천지의 암봉으로 의외로 넓다. 맑으면 쿠나시리토(섬 이름)을 남김없이 조망할 수 있다.



시레토코 오호산책

【DATA】우토로 시가지에서 시레토코 오호주차장까지는 약 14km. 여름철에는 노선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고가목도(나뭇길)코스 1주 15분, 일호~이호의 코스 40분, 오호 전부를 도는 1주 3km코스 90분

시레토코에서 가장 대중적인 산책코스의 하나가 시레토코 오호이다. 다섯 개의 호수를 도는 지상보도와 불곰대책으로서 전기철책이 병설되어 휠체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고가목도(나뭇길)가 있다.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휴일은 꽉 차는 경우도 있어서 버스이용을 검토하자. 지상보도는 불곰의 출몰상황에 따라 폐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관광협회 등으로의 확인을 잊지 말 것. 예년 5월 연휴까지는 눈이 남아서 진창도 많다. 각각의 호수에서는 다른 표정의 시레토코렌잔을 바라볼 수 있다.

불곰대책을 위해 설치된 고가목도(나뭇길). 전망대까지는 주차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지상보도는 시레토코의 자연을 손쉽게 느낄 수 있는 코스이지만 불곰이 출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곰 쫓기 방울 등의 준비를 잊지 말 것

라우스호 산책

【DATA】유보도 입구 주변은 주차금지. 자가용차의 경우는 시레토코 고개 주차장을 이용하고, 유보도 입구까지 도보 약 1시간. 또는 노선버스로 라우스호 입구 버스정류장하차. 유보도 입구에서 라우스호까지는 왕복 약 3시간.

크고 작은 5개의 늪을 돌며 라우스호에 닿는 라우스호 보도는 높낮음이 적고, 늪과 식물과 산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루트이다. 일반 유보도와는 달리, 잔설과 안개로 길을 잃기 쉽고 불곰의 고밀도 생식지역이기 때문에 등산과 같은 장비와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유보도에는 진창이 많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가자. 유보도입구 주변은 주차할 수 없으므로 시레토코 고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노선버스, 전세차를 이용한다. 유보도입구까지의 교통편과 안내가 셋트가 된 가이드투어를 추천한다.

라우스호까지 가는 길에 있는 세 개의 늪. 수면에 비치는 라우스다케의 모습이 멋지다.

완만한 모습의 치니시베츠다케와 조용히 물을 간직한 라우스호.

후레페노타키 산책

【DATA】우토로 시가지에서 시레토코 자연센터까지 약 4km. 노선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주차장 있음. 유보도는 편도 약 1km, 왕복 40분 정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다.

후레페노타키는 별명「아가씨의 눈물」이라 불리워지며 싹뚝 잘려나간 절벽의 도중에서 시레토코렌포의 복류수가 분출하는 폭포이다. 유보도는 시레토코 자연센터의 옆쪽에서. 어린 숲 속을 완만하게 내려가면 밝은 초원과 멀리 새파란 오호츠크해가 펼쳐진다. 초원에서는 일본사슴의 무리를 자주 볼 수 있으며 6월경에는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새끼사슴을 만날 지도 모른다. 전망대에서 폭포의 절벽을 들여다보면 가마우지나 큰재갈매기의 거주지를 관찰할 수 있다.

폭포를 내려다보는 전망대까지는 시레토코 자연센터에서 도보 20분 정도. 바닷새의 난무가 대단하다.

엄동기에는 훌륭한 고드름을 볼 수 있다. 스노슈나 걷는 스키로 산책하는 것도 즐겁다.

쿠마고에노타키 산책

【DATA】유보도 입구에서 쿠마고에노타키까지 도보 15분 정도. 또 시레토코 횡단도로는 선로전체가 주차금지이므로 꼭 쿠마노유 노천탕의 주차장을 이용할 것.

라우스강에 있는 높이 약 15m의 폭포. 일찍이 사냥꾼이 모자 곰을 이 폭포까지 쫓았을 때 엄마 곰이 아기 곰을 도망치게 하려고 결사적으로 밀어 올렸다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다. 쿠마노유, 혹은 라우스온천 야영장의 주차장에서 시레토코 횡단도로를 고개를 향해서 약 1km 나아가면 왼쪽 편에 유보도의 입구가 보인다. 숲 속을 나아가면 머지않아 라우스강에 다다르게 되고 오른편에 폭포가 보인다. 거리는 짧지만 짙은 신록과 물매화가 번성하는 맑은 물이 인상적인 길이다.

국도에서는 가까운 장소이나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폭포. 하류 쪽의 산책로는 현재 사용할 수 없다.

폭포의 하류에 있는 쿠마노유 노천탕. 무인무료의 시설이므로 매너를 지켜서 이용하자.

카무이왓카유노타키 산책

【DATA】카무이왓카유노타키까지는 시레토코 자연센터 또는 오호에서 셔틀버스(11km)를 이용할 것. 자가용, 자전거, 도보는 연중통행금지. 셔틀버스는 종점에서 이치노타키까지 도보 15분.

활화산인 시레토코 이오잔의 중턱에서 솟아나는 온천이 강으로 흘러 들어 온천수가 폭포가 되어있는 카무이왓카유노타키. 셔틀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다리 옆이 입구. 산성이 강하므로 피부가 약한 사람은 요주의. 미끄러지기 쉬운 못 속을 기어오르기 때문에 짚신이나 등산용, 낚시용의 미끄러지지 않는 신을 신고 짐은 배낭에 넣어서 양손을 쓸 수 있도록 하자. 뜨거운 물웅덩이에 들어갈 때는 수영복 등을 착용할 것.

경사면의 여기저기서 솟아나는 뜨거운 물이 강물과 합쳐져서 폭포아래쪽이 뜨거운 물웅덩이가 되어있다.

미끄러지기 쉬운 곳도 많으므로 전용슈즈나 짚신을 신으면 좋다. 맨발이나 샌달은 불가능.

〔자연체험 튜어〕
Nature Tour

유보도 산책뿐만 아니라 시레토코에는 다양한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 자신에게 맞는 튜어를 찾아보자. 풍부한 지식을 지닌 가이드가, 여러 장소를 안내해 줄 것이다.

관광선•유람선

【DATA】우토로쪽, 라우스쪽 양쪽에서 몇 개 회사가 운항하고 있다. 소요시간은 1~2시간 정도(우토로~시레토코곶 항로만 3~4시간) .

시레토코의 묘미는 바다에도 있다. 우토로항·라우스항에서 출항하는 관광선·유람선에서는 또 다른 시레토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레토코를 방문했다면 꼭 바다에서의 경관도 감상해보도록 하자.

〔우토로쪽〕

우토로항을 출항하는 관광선에서는 유빙에 의해 깎여진 절벽, 절벽의 갈라진 틈에서 흘러내리는 크고 작은 폭포, 여러 기암, 흰눈썹바다오리 등의 희소종을 포함한 무수의 바닷새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강의 하구 등에서 일본사슴이나 불곰의 모습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반도 선단부에서는 어업의 거점이 되는 오두막이 점재하는 등, 냉혹한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을 실감할 수 있다. 여름에 맑은 날이 많은 우토로쪽에서는 푸른 하늘 아래에 펼쳐지는 시레토코곶과 곶의 평평한 대지(臺地)의 경치를 높은 확률로 즐길 수가 있다.

〔라우스쪽〕

라우스주변의 네무로 해협은 지금은 일본굴지의 고래구경지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라우스항에서 관광선을 타면 조건만 좋으면 주위에 무수한 고래가 뿜어낸 물이 올라올 정도이다. 봄의 밍크고래를 비롯하여, 범고래, 향유고래, 큰부리고래와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종류가 바뀌는 것도 큰 매력이다. 겨울에는 유빙과 함께 흰꼬리수리·큰독수리와 점박이물범 등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유빙 크루즈도 실시된다.

바다 카약 튜어

【DATA】초급자용의 튜어는 소요시간 약 3시간, 요금은 만엔 정도.

험난한 해안선을 따라서 검푸른 바다를 손으로 젓는 바다 카약으로 돌아보는 튜어. 해면에 닿을락말락한 절벽은 금새라도 덮칠 것 같은 대단한 박력으로 바닷새들이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초급자라도 참가할 수 있는 우토로 주변의 튜어인 경우 후레페노타키나 오토코노나미다까지의 왕복이 일반적. 초보자는 가이드와 함께 2인용의 배를 타는 것이 안심이다. 이 외에 시레토코 반도를 며칠에 걸쳐서 일주하는 상급자용 튜어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빙 워크

【DATA】유빙이 해안에 접근하는 시기에만 개최된다. 소요시간 1.5~2시간 정도. 요금 5000엔 정도.

유빙 산책은 전용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가이드와 함께 그 위를 걷고, 만져보고, 그리고 얼음이 갈라진 틈의 얼음바다에 떠있어 볼 수 있는 긴장감 넘치는 튜어이다. 복잡하게 얼음이 층층이 쌓인 빙원에는 가끔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리며, 바다표범이나 큰독수리, 흰꼬리수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와 동시에 유빙이 만들어지는 구조나 유빙에 의해 전해지게 되는 바다의 은혜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

시레토코곶 방면으로는 규칙을 지켜서 자기책임으로

시레토코곶 등의 시레토코 반도의 선단부 지구에는 이용자를 위한 시설 등은 없고, 그래서 특히 더 원생적인 자연이 남겨져 있습니다. 트렉킹이나 바다 카약 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의사항·금지사항 등의 지역의 규칙을 「시레토코 반도 선단부 지구이용의 마음가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레토코 국립공원 이용의 주의사항 CAUTION

1 야생동물에게 음식을 주지 말 것
자연의 생태계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불곰을 끌어들여 대단히 위험합니다.

2 길을 벗어나 걷지 말 것
보도나 나뭇길을 벗어나 걸으면 위험할 뿐 아니라, 식물이 밟혀져 엉망이 되거나 흙이 떨어져나가기도 합니다.

3 동식물을 잡지 말 것, 위협하지 말 것, 상처주지 말 것, 데리고 들어가지 말 것
섬세한 자연은 작은 행위라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4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갈 것
경관이나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불곰을 유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5 애완동물을 데리고 걷지 말 것
불곰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6 유보도 위에서 걸으면서 먹거나 야외에서는 조리하지 말 것
떨군 음식이나 음식물의 냄새는 불곰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7 불곰 가까이에 가지 말 것
불곰에게 습격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불곰을 보면 재빨리 그 자리를 뜰 것
불곰이 사람에게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할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재빨리 돌아 가십시오.

9 차의 속도는 적당히
사슴이나 여우가 뛰쳐나옵니다.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10 어업종사자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
해산물의 채집이나 어업활동(다시마 말리기 등)·시설(정치망, 오두막시설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피해 주십시오. 지역민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설안내

동식물에 관한 지식이나 등산로에 관한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시설과 시레토코의 자연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캠프장 등, 국립공원을 보다 깊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소개하자.

인포메이션

시레토코 자연센터

최대의 구경거리는 길이 12m, 넓이 20m의 거대스크린에 비추어지는 영상「다이나비젼」. 공중촬영을 이용한 박력있는 영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시레토코의 진짜 모습을 새가 된 기분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시레토코재단에 의한 인포메이션·카운터에서는 등산로와 자연관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매점도 병설되어 있다.

【DATA】소재지/홋카이도 샤리군 샤리쵸 이와우베츠 531
Tel. 0152-24-2114 개관시간/8:00~17:40 (10/21~4/19는 9:00~16:00까지) 휴관일/12월 31일 입관료/무료(다이나비젼은 어른 500엔, 어린이 200엔)

라우스 비지터센터

2007년 5월에 리뉴얼 오픈한 환경성의 시설. 시레토코 반도 라우스쪽의 정보제공과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거점이 되어있다. 관내에서는 시레토코의 자연과 역사, 문화 등을 보거나 접촉하거나 함으로써 알 수 있다. 또한 종합안내 카운터와 렉처룸을 갖추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DATA】소재지/홋카이도 메나시군 라우스쵸 유노사와쵸
Tel. 0153-87-2828
개관시간/9:00~17:00 (11월~4월은 10:00~16:00) 휴관일/월요일 및 연말연시 입장료/무료

시레토코 박물관

샤리쵸의 중심부에 있으며 박물관의 이름처럼 시레토코 반도를 비롯해 샤리쵸의 역사와 자연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게 전시되어 있다. 특히 바다표범이나 독수리류를 중심으로 한 시레토코의 야생동물이나 식물의 생태를 소개한 전시가 충실하며 박제수도 대단히 많다.

【DATA】소재지/홋카이도 샤리군 샤리쵸 혼쵸 49-2
Tel. 0152-23-1256 영업시간/9:00~17:00 휴관일/4~10월은 월요일(공휴일·대체휴일은 개관), 11~3월은 월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입장료/일반 300엔 초등학생·중학생 무료

시레토코 세계유산센터(예정)

시레토코의 세계자연유산등록을 받아서 2009년 오픈을 목표로 정비되고 있는 인포메이션시설. 건설예정지는 시레토코 이용의 거점인 샤리쵸 우토로지구로서 세계유산지역의 입구시설로써 많은 이용자에게 시레토코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매력, 이용규칙, 매너 등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라우스쵸 루사지구에는「루사 필드 하우스」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는 세계자연유산지역인 반도선단부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규칙과 매너의 렉처, 선단부의 리얼타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방지와 환경보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의 관계나 사람과 바다의 관계 등, 시레토코의 자연의 가치를 전하는 시설이 될 예정이다.

캠프장

국영설치 시레토코 야영장

우토로 시가지에서 도보 약 15분, 석양대라고 불려지는 조용한 고지대에 있는 캠프장. 점재하는 큰 나무가 기분 좋은 그늘을 만들어 맑은 날에는 오호츠크해에 지는 석양이 아름답다.

【DATA】소재지/홋카이도 샤리군 샤리쵸 우토로
Tel. 0152-24-2722 (기간외) 0152-62-2211 개설기간/6월 20일~9월 10일 이용료/어른 1박 320엔, 어린이 200엔

국영설치 라우스 온천야영장

시레토코 횡단도로를 라우스에서 시레토코 고개 방면으로 약 3km쯤 나아간 곳에 있는 숲 속의 캠프장. 도로를 끼고 무료 노천탕「쿠마노유」가 있어서 인기가 많아 시즌 중에는 붐빈다. 라우스다케 등산입구나 간헐천도 가깝다. 「쿠마노유」는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관리되어 지역주민들의 휴식의 장이기도 하므로 이용에 있어서는 매너를 지킬 것.

【DATA】소재지/홋카이도 메나시군 라우스쵸 유노사와쵸
Tel. 0153-87-2126 (라우스쵸사무소 환경관리과) 개설기간/6월 1일~10월 31일 이용료/1박 300엔, 초등학생 미만 무료

라우스쵸설립 린칸히로바 야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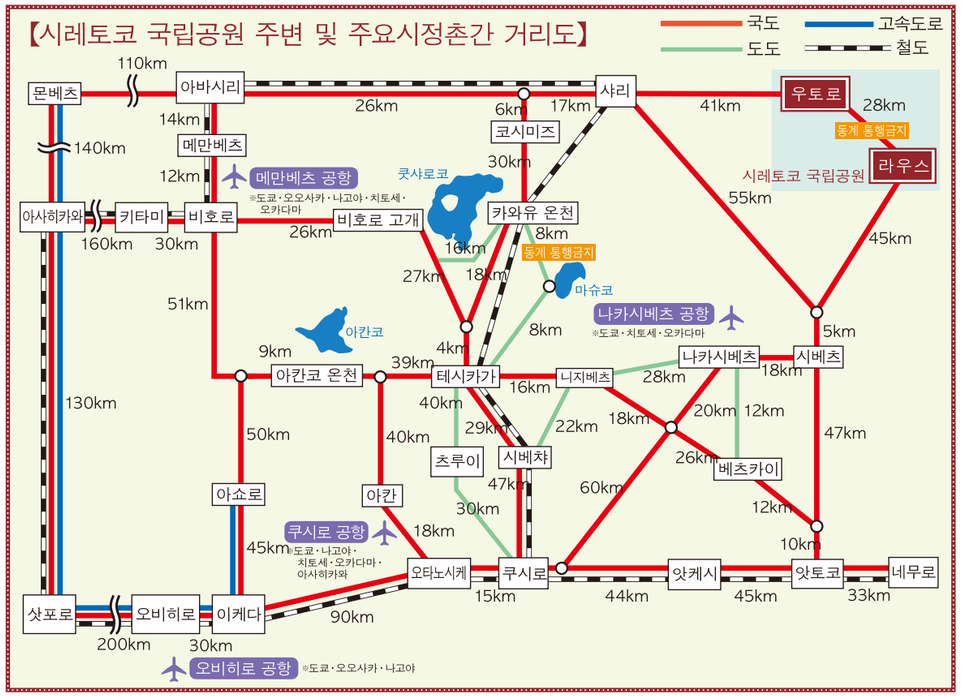
구 라우스쵸민 스키장의 안쪽에 있는 주위가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캠프장. 자연적인 지형을 살린 부지는 차분한 분위기가 감돈다. 시즌 중에도 비교적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용한 캠프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캠프장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을 그대로 올라가면 전망대「망향대」로 연결되며 라우스 시가지에서부터 네무로 해협, 쿠나시리토(섬 이름)을 일망할 수 있다.

【DATA】소재지/홋카이도 메나시군 라우스쵸 레분쵸 31-1
Tel. 0153-87-2126 (라우스쵸사무소 환경관리과) 개설기간/6월 1일~10월 31일 이용료/1박 300엔, 초등학생 미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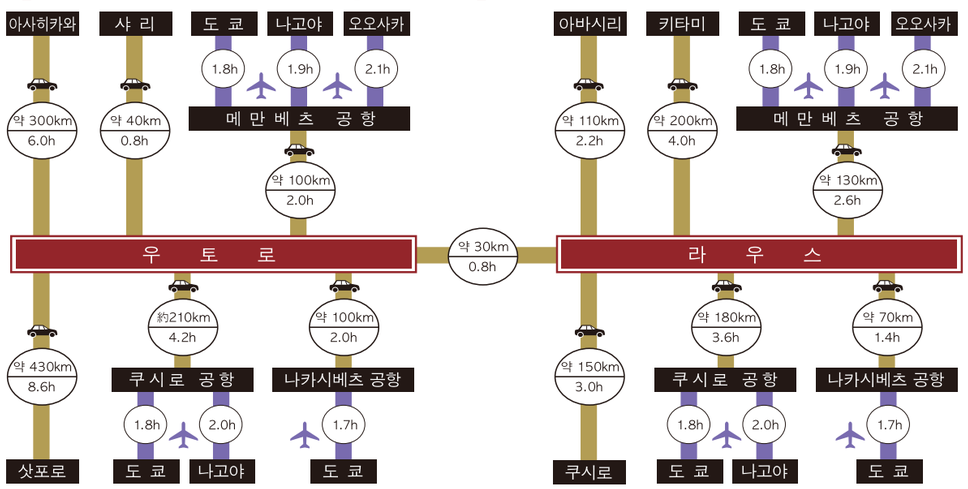
Access to the Shiretoko National Park

시레토코 국립공원에 갈려면

시레토코 국립공원의 거점의 하나, 우토로에는 차나 JR센모혼센·시레토코 샤리역에서 버스를 이용한다. 네무로가와의 라우스에는 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비행기의 경우, 우토로에는 메만베츠 공항, 라우스에는 나카시베츠 공항이 가깝다.



【시레토코 국립공원으로의 교통편 개념도】



관계시설·기관 연락처일람

※주 이용시설의 연락처는 p21을 참조하십시오.

비행기 (메만베츠 공항·나카시베츠 공항 취항회사)

JAL (일본항공) ····· 0120-25-5971
※휴대폰 전용 ····· 0570-025-071
ANA (전일본공수) ····· 0120-029-222
※휴대폰 전용 ····· 0570-029-222
AIRDO ····· 0120-057-333

버스

샤리 버스 본사영업소 ····· 0152-23-2451
샤리 버스 우토로 터미널 (4/28□10/31) ··· 0152-24-2054
아바시리 버스 아바시리영업소 ····· 0152-43-4101
아칸 버스 라우스영업소 ····· 0153-87-2046
아칸 버스 나카시베츠영업소 ····· 0153-73-4370

철도 (역)

JR시레토코 샤리역 ····· 0152-23-2634

전세차

샤리 하이어 (샤리쵸) ····· 0152-23-2100
시레토코 하이어 (샤리쵸) ····· 0152-23-2010
우토로 관광 하이어 (샤리쵸) ····· 0152-24-2121
라우스 하이어 (라우스쵸) ····· 0153-87-2002

렌터카 (공항이나 역 등의 관광안내소에 문의해주십시오.)

메만베츠 공항 관광안내소 ····· 0152-74-4182
나카시베츠 공항 관광안내소 ····· 0153-72-3190
시레토코 샤리 관광안내 센터 ····· 0152-23-2424
아바시리역 관광안내소 ····· 0152-43-4261

관광정보 제공기관·시설

〔샤리쵸〕
시레토코 샤리쵸 관광협회 ····· 0152-22-2125
시레토코 샤리 관광안내 센터 ····· 0152-23-2424
시레토코 우토로 관광안내소 (미치노에키 우토로·시리에토크 내) ··· 0152-24-2639
미치노에키 샤리 ····· 0152-26-8888
미치노에키 우토로·시리에토크 ····· 0152-22-5000
〔라우스쵸〕
시레토코 라우스쵸 관광협회 ····· 0153-87-3360
라우스쵸 관광안내소 (미치노에키 시레토코 라우스 내) ··· 0153-87-3330
미치노에키 시레토코 라우스 ····· 0153-87-5151
〔광역 관광관계기관〕
오호츠크권 관광연맹 ····· 0152-45-1885
네무로 관광연맹 ····· 0153-29-2427

자연정보 등 제공·해설시설

〔샤리쵸〕
시레토코 삼림 센터 ····· 0152-23-3009
〔라우스쵸〕
라우스쵸 향토자료관 ····· 0153-87-2004

자치단체 사무소

샤리쵸 사무소 (대표) ····· 0152-23-3131
샤리쵸 사무소 우토로 지소 ····· 0152-24-2200
라우스쵸 사무소 (대표) ····· 0153-87-2111

경찰서·소방서

샤리 경찰서 (대표) ····· 0152-23-0110
샤리 경찰서 우토로 주재소 ····· 0152-24-2010
샤리 소방서 (대표) ····· 0152-23-2435
샤리지구 소방조합 우토로 분서 (대표) ··· 0152-24-2110
나카시베츠 경찰서 라우스 주재소 ····· 0153-87-2151
라우스 소방서 ····· 0153-87-2119

의료시설

샤리쵸 국민건강보험병원 (대표) ····· 0152-23-2102
도립 우토로 진료소 ····· 0152-24-2052
라우스쵸 국민건강보험병원 (대표) ····· 0153-87-2116

Profile of National Parks in Japan

국립공원의 프로필

국토의 70퍼센트가 삼림에 덮여 싸여, 아한대에서 아열대까지 다양한 환경과 동식물의 천혜의 일본열도. 풍부하고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을 대표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이다.

일본의 국립공원은 1931년 제도창설 이래, 70년여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홋카이도에서 류큐열도까지 29곳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의 육지면적의 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을 커버하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지역시스템의 골격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공원에는 원생적인 삼림과 습원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농경지와 집락주변의 자연, 또한 역사적, 문화적 경관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레크레이션과 관광, 교육활동 등에 이용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중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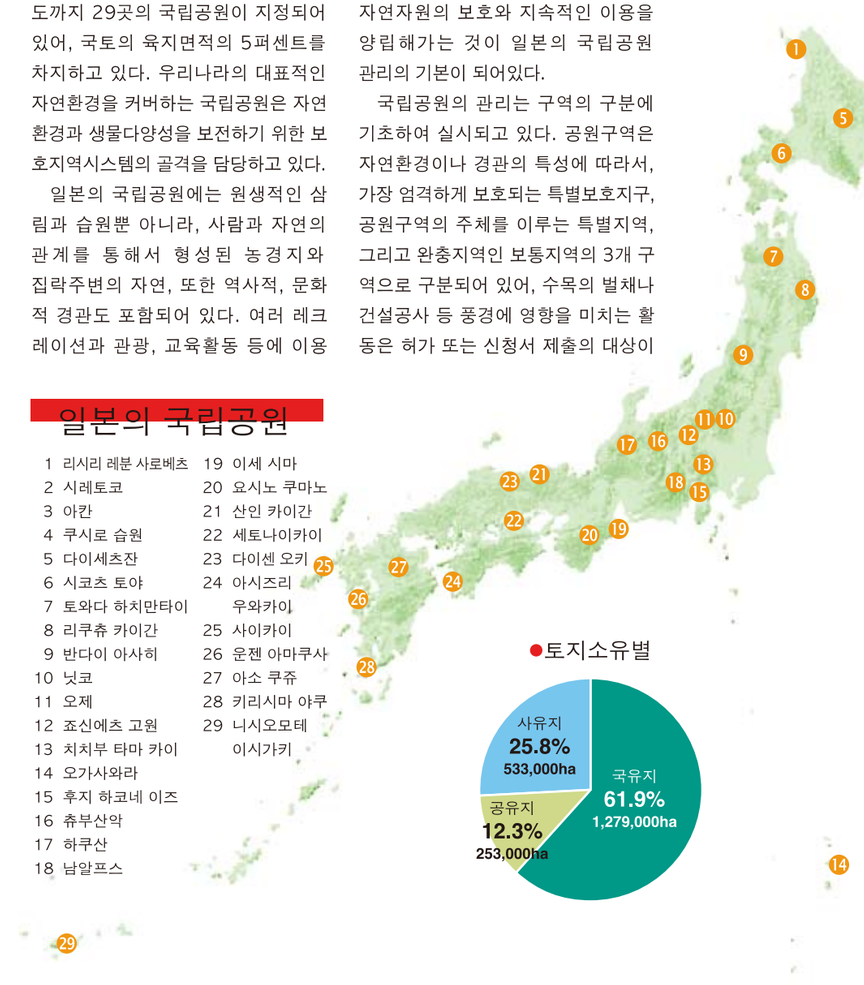
일본의 국립공원은 토지소유에 관계없이 지정된다. 공원내의 국유지도 대부분은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와 산업활동이나 토지이용의 조정을 꾀하면서 자연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양립해가는 것이 일본의 국립공원 관리의 기본이 되어있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구역의 구분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다. 공원구역은 자연환경이나 경관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특별보호지구, 공원구역의 주체를 이루는 특별지역, 그리고 완충지역인 보통지역의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목의 벌채나 건설공사 등 풍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허가 또는 신청서 제출의 대상이 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환경성의 지방환경사무소가 지방공공 단체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실시하고 있다. 각 공원에는 자연보호관이 배치되어 개발행위와의 조정, 이용시설의 정비, 보급계발·통역, 자연환경의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공원

1 리시리 레분 사로베츠
2 시레토코
3 아칸
4 쿠시로 습원
5 다이세츠잔
6 시코츠 토야
7 토와다 하치만타이
8 리쿠츄 카이간
9 반다이 아사히
10 닛코
11 오제
12 죠신에츠 고원
13 치치부 타마 카이
14 오가사와라
15 후지 하코네 이즈
16 츄부산악
17 하쿠산
18 남알프스
19 이세 시마
20 요시노 쿠마노
21 산인 카이간
22 세토나이카이
23 다이센 오키
24 아시즈리 우와카이
25 사이카이
26 운젠 아마쿠사
27 아소 쿠쥬
28 키리시마 야쿠
29 니시오모테 이시가키



●토지소유별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s in Hokkaido

홋카이도의 자연환경보전

풍부한 자연을 자랑하는 일본 내에서도 원생적인 자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홋카이도. 그 자연을 지키고, 공생하며, 미래에 남기고 가기 위해 국립공원 외에도 여러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구조가

●자연공원

일본의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외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의 풍경지인 국정공원(전국에 56개소), 국립공원·국정공원에 다음가는 자연의 풍경지인 도도부현립 자연공원이 있어, 일본최대의 보호구역제도가 되어있다.

●원생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대부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원생상태가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나 뛰어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위생자연환경 보전지역(전국에 5개소), 자연환경 보전지역(전국에 10개소)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인류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국제적으로 보호·보존되는 것이 결정된 자연지역.

●람사르조약등록 습지

일본은 1980년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및 그곳에 생식·생육하는 동식물의 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람사르조약(특히 물새의 생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고 동시에 쿠시로습원을 등록했다 (2008년 현재, 전국에서 33개소(130,293ha)가 등록).

●나라지정 조수보호구

조수(야생에 생식하는 조류와 포유류)의 보호번식을 꾀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대규모 생식지, 집단 도래지, 집단 번식지, 희소조수 생식지의 4구분). 수렵에 의한 조수의 포획이 금지되는 것 외에 야생조수의 보전사업이 실시된다.

국립공원
1 리시리 레분 사로베츠
2 시레토코
3 아칸
4 쿠시로 습원
5 다이세츠잔
6 시코츠 토야

국정공원
1 쇼칸베츠 테우리 야기시리
2 아바시리
3 니세코 샤코탄 오타루 카이간
4 히다카 산맥 에리모
5 오오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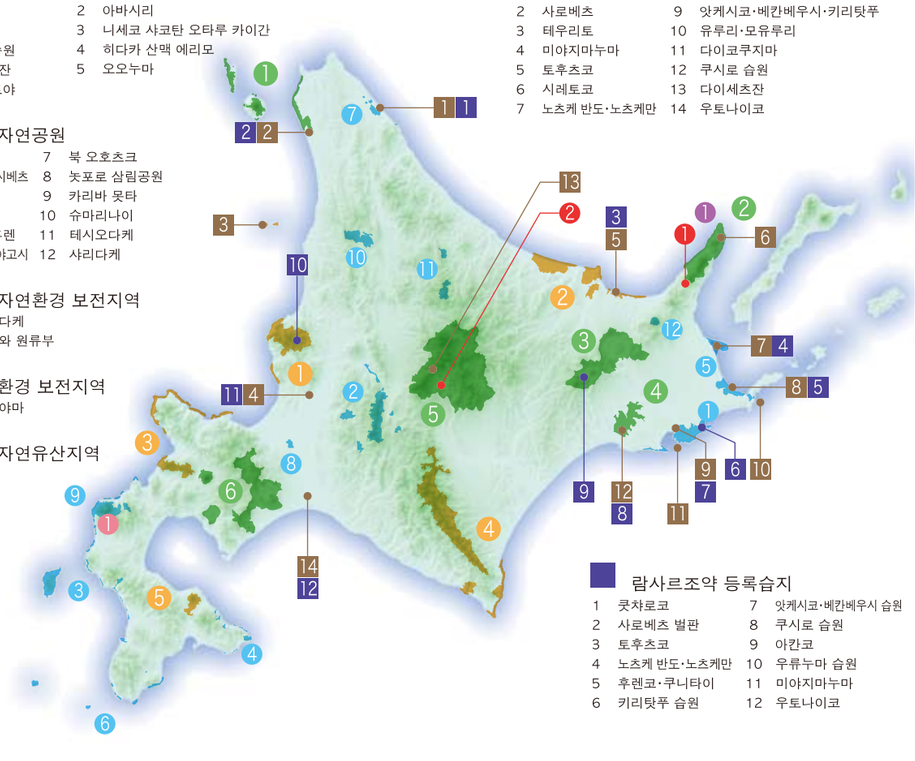
나라지정 조수보호구
1 하마톤베츠 콧챠로코
2 사로베츠
3 테우리토
4 미야지마누마
5 토후츠코
6 시레토코
7 노츠케 반도·노츠케만
8 후렌코
9 앗케시코·베칸베우시·키리탓푸
10 유루리·모유루리
11 다이코쿠지마
12 쿠시로 습원
13 다이세츠잔
14 우토나이코

도립자연공원
1 앗케시
2 후라노 아시베츠
3 히야마
4 에산
5 노츠케 후렌
6 마츠마에 야고시
7 북 오호츠크
8 놋포로 삼림공원
9 카리바 못타
10 슈마리나이
11 테시오다케
12 샤리다케

원생자연환경 보전지역
1 온네베츠다케
2 토카치가와 원류부

자연환경 보전지역
1 오오히라야마

세계자연유산지역
1 시레토코



람사르조약 등록습지
1 콧챠로코
2 사로베츠 벌판
3 토후츠코
4 노츠케 반도·노츠케만
5 후렌코·쿠니타이
6 키리탓푸 습원
7 앗케시코·베칸베우시 습원
8 쿠시로 습원
9 아칸코
10 우류누마 습원
11 미야지마누마
12 우토나이코